

위험감수성향과 자기중심성이 주식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조 우 관 전 유 민

가톨릭대학교 중독학과
박사과정

이 석 호[†]

가톨릭대학교 중독학과
교육전담초빙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위험감수성향, 자기중심성 및 자기통제력이 주식중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와 이 요인들이 주식 중독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에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사용한 척도는 위험감수성향 척도, 자기중심성 척도, 자기통제력 척도, 주식중독 척도이다.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Jamovi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술통계분석과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들의 주효과 및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효과(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 결과, 위험감수성향과 자기중심성은 주식중독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자기통제력은 주식중독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다중선행회귀분석 결과 위험감수성향과 자기중심성의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통제력은 자기중심성과 주식중독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주식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과 심리적 개입 시 적용할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논의한 후 추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위험감수성향, 자기중심성, 자기통제력, 주식중독, 다중회귀분석, 조절효과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석호, (1466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번지 가톨릭대학교 중독학과 교육전담초빙교수, TEL: 02-2164-6505, E-mail: jokuna@gmail.com

시대가 변하면서 4대 중독으로 일컬어지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중독 이외에 투자, 쇼핑, 운동, 기술, 음식, 일, 종교 등에 있어서의 신(新) 중독 현상들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일상생활에 보편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중독되었을 때조차 그 심각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한다. 특히 주식투자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물이자 인생의 도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김수현, 2019). 하지만 주식투자는 변동성 예측이 불가능하고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이동준 외, 2021), 주식투자의 'high risk high return'의 기본 원칙은 도박의 특징과 정적 상관이 있다(강상준 외, 2021). 도박은 범죄로 취급되는 사회적 분위기라도 있지만, 주식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투자에 실패했더라도 개인의 실력 부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주식 중독자 스스로도 중독임을 인정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박찬범, 2022). 심지어 늘어가는 빛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상담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중독자라는 인식은 매우 약하다(안영규, 2021).

한국의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고 최근 들어서는 세대를 막론하고 주식 열풍에 빠져 있다(안영규, 2021).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이나 '빚투(빚을 내 투자한다)'처럼 가용한 모든 자금을 동원해서라도 주식 등에 투자한다는 뜻의 신조어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2020년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신용융자의 상승 폭이 미국의 3배, 일본의 5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박현, 2021).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2022)'를 보면 2021년 말 개인투자자 신용융자 잔액은 23.1조 원

으로 전년 대비 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주식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가운데, 신용융자 잔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식시장 하방 압력 지속 시 신용융자 활용계좌 및 고위험 계좌(담보 비율 170% 미만) 등에서 개인투자자 손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을 뜻한다. 특히 휴대 전화 주식 앱으로 주가를 확인하는 것은 몰입요인으로 작용하며(이동준, 한창근, 2021). 비대면 계좌 개설은 주식에 처음 입문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투자의 위험성을 간과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이동준 외, 2021).

금융상품에 대한 유형, 기간, 위험 수준, 이득 또는 손실, 기술(기법) 등으로 투자(investment)와 투기(speculation)를 구분할 수 있으나 명확한 구분은 매우 어렵다(Arthur et al., 2016). 주식시장은 이른바 투기장으로 변한 지 오래이며(김왕배, 2011), 주식투자로 인한 가정파탄, 우울 및 불안장애 등의 심리적 부적응, 자살 사고 등의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다. 주식은 비교적 많은 사람이 돈을 벌기 때문에 자신만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상대적 박탈감,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우울증, 투자금 손실로 인한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과를 찾는 청년세대가 급증하고 있다(송복규, 윤예원, 2022). 주식투자 실패로 5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횡금주, 2021). 장중에 느낄 수 있는 몰입의 재미는 일시적이지만, 끝나고 나면 자괴감이 밀려오고 이때 우울감과 자괴감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음 날 다시 매매하게 된다(김수현, 2019). 실제로 금융투자를 하는 동안 뇌의 보상 영역인 복측 선조체가 활성화되는데(Knutson & Bossaerts, 2007), 도박이나 주식 투기와 같이 즉각적인 뇌의 보상으

로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도파민을 분비했던 자극을 원하는 보상회로가 계속해서 자극되면서 전두엽과 중피질 경로가 손상되고 이러한 뇌 변화가 지속되면 욕구 조절의 어려움, 의사 결정의 문제 등 뇌 기능에도 문제가 생긴다(이슬비, 2021). 최근 늘고 있는 청년 투자자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발달 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독 재활 측면에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기도 한다(이동준 외, 2021).

주식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주식중독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으며(황세홍, 2022), 일부에서는 매매중독, 거래중독, 병리적 거래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주식중독에 대한 진단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중독을 임상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진단 및 통계편람(DSM-5)에 제시된 인터넷 게임 장애 및 도박 장애 진단 기준을 적용한 주식중독에 대한 척도가 개발되었다(Youn et al., 2016), 이경윤(2022)의 연구에서도 인지행동과 심리상태를 하위 구성요소로 한 주식 중독에 대한 진단척도가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진단명을 뛰어넘어 하나의 현상으로서의 중립적 단어이기도 한 ‘중독’을 사용하여 위험한 주식투자와 거래 행위를 주식중독으로 명명한다.

주식중독은 의존과 강박을 모두 동반하는가 하면, 약물 중독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유사하게 거래에 대한 통제력 상실, 내성 및 금단 증상을 점진적으로 유발한다(Guglielmo et al., 2016). 즉, 하루의 대부분을 금융시장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충동으로 투자를 계속하며,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통제력과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 는 착각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실제로 알코올, 약물과 같은 물질중독(substance addiction)과 도박 등의 행위중독(behavioral addiction)은 공통의 속성을 가지고 동일한 기전에 의해 발생하며, 동시 발생(co-occurrence)률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장수미, 2016). 특히 초보자에게 주식 거래는 금융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가격 변동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려는 욕구로 인해 중독성이 강하다(Hardika et al., 2023).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에까지 투자한 일부 투자자는 해외 시장까지 따라가느라 불면증을 호소하고 각성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는 등 정신장애의 위험성을 갖고 있으며, 홍분감을 강화하고 손실과 위험을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하는 전능감도 갖고 있다 (Guglielmo et al., 2016). 또한 주식은 자신의 예측이 맞았을 때 큰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는 우월감과 자부심과도 관련되어 있다(이동준, 한창근, 2021). 주식중독으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부작용들은 다른 중독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직업 및 사회적 활동뿐만 아니라 가족 및 타인들과의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주식중독을 도박중독과 주로 비교하며 둘 사이의 유사성에 주목해왔다. 주식투자는 우연, 기술, 추리, 특수정보 등이 가미된 도박의 일종이며, 주식투자와 도박 모두 투기성이 강하고 개인의 심리적 상황과 사회적 여건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백용호, 차명준, 1994). 주식 투자가 갖는 우연성, 유희성, 자본성, 공간성의 특성이 도박의 특성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다(강준혁, 맹성준, 2018). 도박적 측면의 사행성은 도박에 한정된 것이 아닌, 주식이

나 부동산 투자, 증권, 선물 거래 등의 경제적 활동과도 공유하는 측면이 있으며(김석준, 강세현, 1996), 특히 신규투자자들이 수익을 빼르게 내고자 하는 금전적 보상에 대한 높은 욕구는 도박자들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황세홍, 2022). 한국의 개인투자자들 중 21.5%가 상습도박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투자자들 중의 일부는 자신을 도박중독으로 칭하기도 한다(Youn et al., 2016). 한국마사회(2009)의 ‘전 국민 대상 대규모 도박 이용실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8%가 일부 주식(단타 매매와 선물옵션)을 도박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반응하였다(한성열 외, 2009에서 재인용).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중 주식중독과 관련된 상담 건수는 2020년 3,540 건에서 2021년 5,524건으로 증가하였다(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2022). 이는 중독상담의 주제가 점점 더 다양화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투자를 단순히 경제적인 활동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심리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주식투자를 경제적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왔으며(김순석, 2009; 김현석, 서정원, 2018; 정대성 외, 2024), 주식중독과 관련한 심리적 요소를 알아보는 선행연구들은 턱없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주식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감수성향, 자기중심성, 자기통제력 등의 심리적 기체나 개인의 성향을 알아보는 것은 상담 관련 연구에 있어 여러 통찰과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어떠한 심리적 특징과 개인의 성향이 주식중독을 유도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중독 예방과 교육에 있어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도박중독을 비롯한 여러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개인 내적인 요소들을 밝히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위험감수성향(risk-taking tendency)은 사행성 게임, 도박, 범죄, 비행과 같은 위험 행위를 하는 데 있어 특히 취약한 소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성격 특성이다(Knowles et al., 1973).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를 하며 미래의 수익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는 불확실한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구하는 위험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진세희, 2021). 따라서 위험은 투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감수성향은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정순희, 신민경, 2011). 위험감수성향은 자신의 특정한 행동이 처벌이나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러한 행동을 하려는 성향을 뜻하는 것으로(Ferguson et al., 1991), 높은 위험감수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보다 빨리 의사 결정을 내리고 기꺼이 기회를 잡으려 하는 반면,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보다 조심스럽고 주의 깊게 의사 결정을 내리며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김완재, 정화영, 2007). 위험감수성향이 높은 개인은 타인들이 매우 위험하다고 한 결과에 대해 낙관적으로 지각하고 자신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에 대해 과소평가함으로 위험에 접근한다(남기연, 권영실, 2023; 이수정, 김교현, 2017). Knowles(1976)는 위험감수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더 위험한 배팅을 한다고 하였으며, Ainia와 Lutfi(2019)도 위험감수성향이 높을수록 위험자산에 투자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Joseph(2007)은 중독을 유발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격적 결함은 자기중심성(egocentrism)이라고 하

였고, 특히 도박과 관련하여 자기중심성은 다른 유형의 중독자 집단에 비해 특출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박자들이 자기중심적인 성격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자기중심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 내적 심리구조나 역동 체계가 자기애적이고 옹대하며 과장된 자기지각과 과시적인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권석만, 한수정, 2000). 또한 이들은 자기과장적이고 자기몰두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이지현, 2018),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자기개념을 갖고 있다(강선희, 정남운, 2002). 김현진(2019)의 연구에서도 자기중심성 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문제성 도박행위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손영은(2018)은 자기중심성이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이라고 하였고, 이은지(2015)는 자기중심성과 SNS 중독 경향성은 정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Joseph(2007)에 따르면, 자기중심성은 도박자의 자아의식을 고양시켜 자연스럽게 더 많은 금액을 베팅하도록 이끈다고 하였고 특히 다른 사회심리학적 측면이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도 과도한 자기중심성은 자기통제를 실패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원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자기통제력은 중독에 있어서 자기중심성을 비롯한 성격적 특성을 조절하는 변인 및 보호 요인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도박 행동에 있어서의 보호 요인으로 자기통제력을 꼽은 바 있다(김덕진, 2017; 이승제 외, 2018). 무엇보다 중독은 스스로 이용을 통제하는 능력의 상실이자(김병년 외, 2013), 자기조절 상실(김교현, 2006)로 설명되기 때문에 중독에

있어 자기통제력은 중요한 내적 변인이다 중독을 설명하는 특징(김신희, 이창현, 2023; 장효강, 2015)으로 거론되곤 했다.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경우 흡연, 음주, 약물 사용 등 문제행동을 일으키고(Gottfredson & Hirschi, 1990), 자기조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현주, 2012). 자기통제력은 비행과 범죄 행위의 기회에 노출되었을 때 비행을 저지르는 사람에 의해 이를 피하려는 사람의 차별적인 경향성(Gottfredson & Hirschi, 1990)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충동성과는 반대의 개념으로 지연되지 않는 작은 결과보다 좀 지연되더라도 더 큰 결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Logue, 1995).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경향이 있었고(김은정, 2002), SNS 중독 경향성과도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남준, 장현아, 2023), 도박중독에 빠질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심옥녀, 2008). 이성식(2024)의 연구에서는 게임중독 경향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가능성은 높지만 그 영향력은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자기통제력이 높은 경우는 그 영향은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중독과 폭력 사이에도 자기통제력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자기통제력은 도박중독을 비롯한 중독 행위에 있어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유인노 외, 2014) 모든 중독 치료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이홍표, 2002; Joseph, 2007).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할 때 본 연구에서는 위험감수성향과 자기중심성은 주식중독에 정적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았고, 자기통제력은 주식중독에 부적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자기통제력은 주식중독에 있어 조절변인으로 작용

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근간으로 위험감수성향, 자기중심성과 주식중독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위험감수성향 및 자기중심성은 주요 독립변수로, 자기통제력은 조절변수로, 그리고 주식중독은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통해 주식중독을 비롯한 중독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개입 방안 제시에 있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위험감수성향이 주식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자기중심성이 주식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자기통제력이 주식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자기통제력은 위험감수성향과 자기중심성이 주식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방법

연구 절차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No. 1040395-202406-04)을 받은 후,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전, 연구의 목적과 참여에 대한 혜택 및 부작용, 연구자료의 보관 방법, 연구 참여 중단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 점 등에 대해 설명되었으며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 및 서명한 참여자에 한 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결과 총 300명의 응답이 모두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표 1에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성 150명(50%), 여성 150명(50%)으로 동일한 비율로 진행되었다. 연령 분포는 만 19~29세 66명(22.0%), 만 30~39세 76명(25.3%), 만 40~49세 81명(27.0%), 만 50세 이상 77명(25.7%)이었다. 학력 분포는 대학교 졸업 203명(67.7%), 대학원 재학 이상 49명(16.3%), 고등학교 졸업 48명(16.0%)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월 450만원 이상 83명(27.7%), 월 300~450만원 미만 83명(27.7%), 월 150~300만원 미만 8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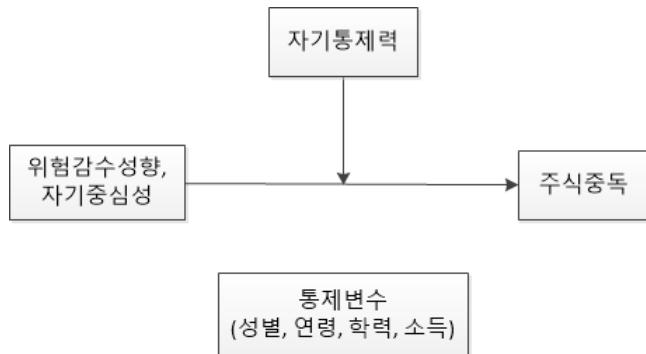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N=300)

변인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50	50.0%
	여성	150	50.0%
연령	만 19~29세	66	22.0%
	만 30~39세	76	25.3%
	만 40~49세	81	27.0%
	만 50세 이상	77	25.7%
학력	고등학교 졸업	48	16.0%
	대학교 졸업	203	67.7%
	대학원 재학 이상	49	16.3%
소득	월 150만원 미만	18	6.0%
	월 150~300만원 미만	89	29.7%
	월 300~450만원 미만	83	27.7%
	월 450만원 이상	83	27.7%
	고정된 소득 없음	27	9.0%

(29.7%), 월 150만원 미만 18명(6.0%), ‘고정된 소득 없음’은 27명(9.0%)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위험 감수 척도. 위험감수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Knowles 등(1973)이 개발하고 이홍표(2002)가 변안하여 타당화한 위험감수척도(Risk-Taking Questionnaire [RTQ])를 사용하였다. 이홍표의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15문항의 단일척도로 결정되었고,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로 평정한다. ‘나는 모험을 즐기는 편에 속한다’, ‘때로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가 그 묘미를 즐긴다’, ‘나는 다소 기질이 거친 사람이 좋다’와 같은 문장을 포함하고 있다. 15문항 중 8문항(1, 2, 4, 7, 9, 12, 13, 14)은 역채점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체 척도 점수의 범위는 15~75점까지로 총점이 높을수록 위험감수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8이었다. **자기중심성 척도.** 자기중심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개발 및 타당화한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의 착취/자기중심성 9문항을 사용하였다.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나를 위해 많은 돈을 쓰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 자존심이 상했던 경우가 있다’ 등의 문장을 포함하며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로 구성되어 있다. 합산을 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중심성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 척도. 자기통제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Kendall과 Wilcox(1979)가 개발한 자기통제 척도(Self-Control Rating Scale [SCRS])를 송원영(1998)이 자기 보고형으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래 이 검사는 3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송원영의 연구에서 대학생 126명의 예비 조사를 통해 21문항으로 재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을 때가 있다’, ‘한 가지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이나 생각에 정신을 팔곤 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로 평정하며 21문항 중 9 문항(5, 6, 7, 8, 9, 10, 11, 15, 19)은 역채점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기통제력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8이었다.

주식중독 척도. 만 19세 이상 성인의 주식 중독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경윤(2022)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주식중독 진단 측정 척도(Stock Addiction Diagnostic Measurement Scale [SADM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하위 요인에는 인지행동진단(10문항)과 심리상태진단(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심리상태진단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주식투자로 수익을 올린 뒤 더 많이 투자하겠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주식매매를 하지 않으면 초조하고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며,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로 평정한다. 분석에서는 평균 점수가 높아짐에 따라 주식중독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Jamovi 2.3.28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 도구의 내적 합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Ch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넷째, 각 변인 간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가로 다중회귀분석에 대한 기본 가정 검정 결과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위험감수성향, 자기중심성과 주식중독의 관계에서 자기통제의 조절 효과를 검정하였다.

결과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주요 변수 간 상관계수와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위험감수성향의 평균은 2.315($SD=0.523$), 자기중심성의 평균은 2.589($SD=0.656$), 자기통제력의 평균은 3.615 ($SD=0.439$), 주식중독의 평균은 2.587($SD=0.751$)로 각각 나타났다. 위험감수성향과 자기중심성 ($r=.341, p<.001$)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위험감수성향과 자기통제력($r=-.338, p<.001$)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자기중심성과 자기통제력($r=-.433, p<.001$)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주식중독과 위험감수성향, 자기중심성, 자기통제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주식중독과 위험감수성향($r=.436, p<.001$), 주식중독과 자기중심성 ($r=.427, p<.001$)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주식중독과 자기통제력($r=-.275, p<.001$)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각 변인의 왜도

표 2.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N=300)

구분	위험감수성향	자기중심성	자기통제력	주식 중독
위험감수성향	1			
자기중심성	.341***	1		
자기통제력	-.338***	-.433***	1	
주식중독	.436***	.427***	-.275***	1
평균	2.315	2.589	3.615	2.587
표준편차	0.523	0.656	0.439	0.751
왜도	0.228	0.055	0.195	0.186
첨도	0.152	0.251	0.128	0.494

주. *** $p<.001$.

와 첨도는 절대값이 모두 2.0을 넘지 않으므로 정규분포임을 가정할 수 있다(Gravetter & Wallnau, 2014).

위험감수성향, 자기중심성, 자기통제력이 주식중독에 미치는 영향

각 변인이 주식중독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위험감수성향, 자기중심성, 자기통제력을 예언 변인으로 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MLR])을 실시하였다. 다중선형회귀분석은 다수의 독립변수(explanatory variables)와 하나의 종속변수(response variable) 사이의 관계를 선형으로 가정하고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회귀 계수(regression coefficients)를 추정하는 통계적 기법이다(Ross, 2004).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전체 설명력(R^2)을 비롯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적합도 결과는 $F=15.178$, $p<.001$ 로 다중회귀모형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다중회귀모형이 종속변수인 주식중독 분산의 29.9%(adj. $R^2=.299$)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 가운데 위험감수성향($B=0.435$, $p<.001$), 자기중심성($B=0.342$, $p<.001$)이 정적(+)인 방향에서 주식중독의 유의한 예언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위험감수성향과 자기중심성이 높을수록 주식중독 수준이 심각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자기통제력은 주식중독에 대해서 유의한 예언 변인이 아니었다.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들의 베타 값을 살펴본 결과, 위험감수성향($\beta=0.303$)이 자기중심성($\beta=0.298$)에 비해 주식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성별, 연령, 소득, 교육 수준 등을 도박 및 주식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으로 주로 보고하고 있고(강상준 외, 2021; 이연호 외, 2018; 이준영, 정지영, 2011; 전진아, 2015; Thijss et al., 2014), 본 연구에서도 성별, 연령, 학력, 소득의 경우 주식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되어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통제변수의 경우 성별($B=-0.004$, $p=.956$), 연령($B=0.004$, $p=.199$), 학력($B=-0.093$, $p=.390$)은 유의하지 않은 반면, 소득($B=0.080$, $p=.019$)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주식중독 수준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나

표 3. 주식증독에 대한 다중 선형회귀분석 결과(N=300)

구분	B	β	S.E.	t	p	Model
(상수)	2.253		0.159	14.155	<.001	
성별 (남=1, 여=0)	-0.004	-0.003	0.080	-0.056	.956	
연령	0.004	0.068	0.003	1.288	.199	
학력						$F=15.178, p<.001$
(대출이상=1, 고졸이하=0)	-0.093	-0.045	0.108	-0.860	.390	$R^2=.320 / adj. R^2=.299$
소득	0.080	0.128	0.034	2.364	.019	Shapiro-Wilk=.993, p=.136, Breusch-Pagan=8.991, p=.438,
위험감수성향	0.435	0.303	0.079	5.499	<.001	VIF=1.174~1.374, Tolerance=0.728~0.852,
자기중심성	0.342	0.298	0.064	5.321	<.001	Durbin-Watson=2.089, max Cook's D=.116
자기통제력	-0.137	-0.080	0.097	-1.411	.159	
위험감수성향 × 자기통제력	0.239	0.073	0.144	1.657	.099	
자기중심성 × 자기통제력	-0.366	-0.141	0.124	-2.965	.003	

타낸다.

다음으로 다중회귀분석에 대한 기본 가정 검정 결과들을 살펴보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변수에 대한 정규성 여부는 왜도 및 점도 값을 통해 판단하였다. 추가로 잔차의 정규성 여부는 Shapiro-Wilk 검정을 통해 판단한 바, 이에 따른 정규성 가정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W=.993, p=.136$). 잔차의 등분산성에 대한 가정은 Residuals Plot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일정한 패턴 없이 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며, Breusch-Pagan 검정 결과 역시 등분산성 가정이 만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P=8.991, p=.438$). 오차항의 독립성 여부에 대해서는 Durbin-Watson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검정통계량이 1.5와 2.5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독립성 가정이 만족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DW=2.089$). 추가적으로 다중회귀분석은 다중공선성에 대한 검정을 필요로 한다. 공선성 진단 결과 분산팽창계수(VIF)가 5보다 작고 공차(Tolerance)가 0.4보다

크게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극단값(outlier)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Cook 거리를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 최대값이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max Cook's D=.116). 따라서 본 연구모형에 영향을 미치는 극단값을 포함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감수성향, 자기중심성과 주식증독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 위험감수성향, 자기중심성 및 자기통제력 점수는 각각 평균 중심화를 실시한 후 상호작용항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주식증독에 대한 위험감수성향과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B=0.239, p=.099$), 자기중심성과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0.366, p=.003$). 계수값을 살펴보면, 자기통제력이 1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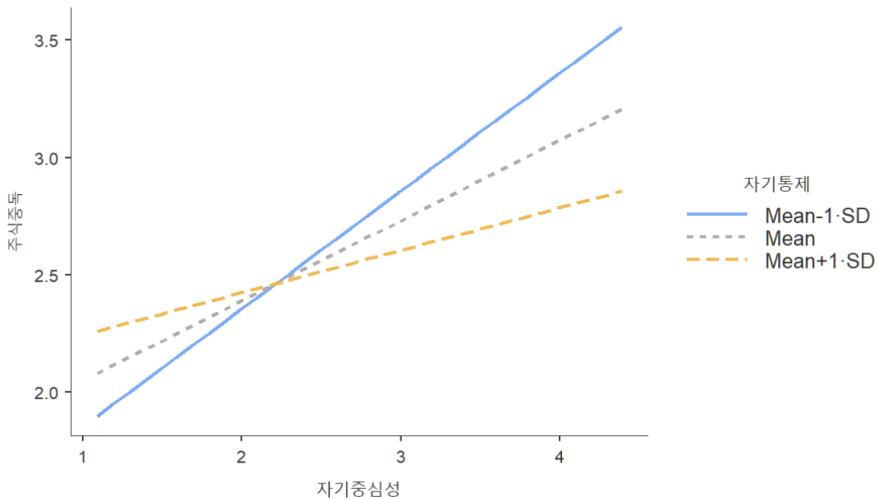


그림 2.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1점) 증가할 때마다 자기중심성과 주식중독과의 관계는 .336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절효과는 자기통제력을 점수의 크기에 따라 3개의 수준으로 구분하여(-1 표준편차, 평균, +1 표준편차) 그림 2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수인 자기중심성이 높을수록 종속변수인 주식중독의 수준은 높아지는데, 이때 조절변수인 자기통제력이 높아질수록 자기중심성이 주식중독을 촉진하는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본 연구에서는 주식 경험이 있는 일반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Jamovi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험감수성향, 자기중심성, 자기통제력이 주식중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와 각각의 변인이 주식중독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과 더불어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의 의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주식중독과 위험감수성향, 자기중심성, 자기통제력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위험감수성향과 주식중독은 가장 높은 수준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위험감수성향과 도박중독·불법도박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선행연구들(서용석, 송섭규, 2023; 송춘희, 2019; 이수정, 김교현, 2017; 이준복 외, 2014; Mishra et al., 2011)과 위험감수성향과 위험한 주식투자행태의 관련성을 제시하는 선행연구들(이준영, 정지영, 2011; 진세희, 2021; Ainia & Lutfi, 2019)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자기중심성과 주식중독도 높은 수준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 자기중심성과 중독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바 있으며(김정주, 2023; 이주영, 2017), 김현진(2019)의 연구에서도 자기중심성과 문제도박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자기통제력과 주식중독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기통제력과 중독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강훈, 2016; 김혜경, 2024; 정남운, 유은영, 2015)에서도 보고된 바와 같다.

둘째, 다중선행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별, 연령, 학력의 통제변수는 모두 주식중독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의 통제변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위험감수성향이 높으면 주식중독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감수성향은 쉽게 변하지 않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서용석, 송섭규, 2023)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중독자들의 기질과 도박중독 및 위험한 주식투자와의 관련성이 연구되어 왔다(김경진 외, 2019; 변서영, 김교현, 2018; 이경희, 2010; 한영옥, 2012; Franken et al., 2006; Hamstra et al., 2011). 따라서 중독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위험감수성향은 특정 연령이나 상황을 뛰어넘는 개인의 고유한 특질인 것으로 유추해볼 수도 있겠다. 특히, 손실을 경험한 경우 위험감수성향은 더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인간은 손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회피하고자 무모하고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한미영 외, 2009), 금전적 손실이 커진 도박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베팅하는가 하면 (O'Connor & Dickerson, 2003; Xuan & Shaffer, 2009), 주식투자자 역시 주식투자 과정에서 손실을 입었을 때 이를 견디지 못하고 빠르게 만회하기 위해 설부르게 판단하여 또 다른 투자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손명환, 2022). 도박자들은 도박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보았을 때 도박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수

단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Gilovich & Douglas, 1986; 한미영 외, 2009에서 재인용), 이는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나타나는 특성으로, 경제적 손해가 심한 투자자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더 큰 위험성을 지닌 종목에 투자하거나, 대출의 이용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투자금을 마련하는 등 무리한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하기도 한다(손명환, 2022). 이러한 본전 회복 욕구는 투자자들의 위험성향을 더 부추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투자 경력에 따라서 위험 성향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준복 등(2014)의 연구에서도 불법도박 주도박 집단과 경험집단이 무경험 집단보다 위험감수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기중심성이 높을 때도 주식중독이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중심성은 자신의 욕망을 다른 사람의 욕망보다 우선시하게 만든다. 이러한 특성은 낮은 자존감을 과도하게 높은 자존감으로 가장하려는 시도에서 나타난다(Joseph, 2007). 자기중심성은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척도로 자기애적 성격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에 대한 연구는 자기애 연구에서 주로 찾을 수 있다(김세종, 홍혜영, 2024; 임숙영, 임영진, 2017; Ryan & Xenos, 2011). 자기중심성이 강한 자기애 성격을 가진 이들이 중독적 경향성을 가진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증되기도 했다(류경희, 2014; 원소희, 서경현, 2016; Mehdizadeh, 2010). 또한 이러한 성격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성향을 더 과대평가하여(Macenczak et al., 2016) 편향된 평가를 더 많이 유지하고(김현진, 2019), 만성적으로 우월성에 대한 착각을 보이기 때문에(Brown & Zeigler-Hill, 2004) 주식투자에

서도 보상에 대해 더 민감하고 더 높은 이득을 얻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자기통제력의 경우,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위험감수성향이나 자기중심성과 공통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Gottfredson과 Hirschi(1990)에 따르면 자기통제의 하위 구성요소로 충동성, 단순한 일의 선호, 위험한 행동선호, 신체적 활동의 선호, 발끈한 성미, 자기중심성을 꼽은 바 있다. 이에서 보듯이 자기통제력에는 위험감수성향과 자기중심성의 특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하위의 특성에 해당하는 다른 변인들과 함께 주식중독을 공통으로 설명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도 자기통제력이 위험감수성향 ($r=-.338$, $p<.001$) 및 자기중심성($r=-.433$, $p<.001$)과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속변수를 공통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위험감수성향과 주식중독의 관계에서는 자기통제력이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나, 자기중심성과 주식중독의 관계에서는 자기통제력의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력이 높을 경우에는 자기중심성이 주식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기통제력이 일종의 보호요인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통제력을 자기조절전략과 도박 폐해의 심각성을 줄이는 보호요인이자(김덕진, 2017; 이민규 외, 2003), 자기중심적인 개인에게 있어 자기통제력이 중독의 잠재적 요인이나 보호 요인으로서 기능한다는 선행연구(Jauk & Dieterich, 2019)의 결과와 일관

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기반한 연구 의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중독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중독을 도박중독의 일종으로 보는 시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중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주식중독에 대한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주식투자 경험에 있어서 중독적인 요인과 개인별 특성을 밝혀내는 것은 중독 연구에 있어 주효하며 관련한 후속 연구들의 기초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도박에 대해서는 중독성과 지나친 개인적·사회적 비용 지불 및 심리적 부적응 등의 문제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는 반면, 주식에 대해서는 합법적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담배나 알코올, 일부 도박의 경우 합법적인 행위더라도 그 모두가 심각한 중독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문제에 있어서도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중독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도박의 종류에 주식을 포함했을 때 주식이 차지하는 손실과 부채의 비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한성열 외, 2009) 가정의 위기와 해체와도 연결되는 문제일 수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본 연구는 주식 중독자들에 대한 심리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중독은 다른 질병과의 공병률이 높고, 중독과 중독이 연쇄적 혹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 주로 나타나고 있는 중독 증상이 다른 중독이나 정신질환의 유발 신호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인 상담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에게 주

식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마치 조기 경제교육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반해 주식투자에 대한 위험요인과 부작용에 대한 교육은 미흡하다. 따라서 중독 예방 교육에 있어서도 주식을 포함하여 주제의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중독은 아직 DSM-5의 진단명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자들 간 주식중독에 대한 개념 정립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합의되지 않았기에 주식중독의 개념 정의와 범위의 규정은 매우 난해한 문제이다. 주식중독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상황에서 도박중독에 대한 연구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식중독만의 특성을 밝혀내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단기 매매나 데이 트레이딩, 신용거래나 파생상품 투자, 충동적 투자 등 문제성 투자의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주식중독만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본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에 시간적 변화와 인과관계 분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를 통해 대상자의 변화와 장기적인 경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주식중독에 대한 심리적 특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식중독을 종속변인으로, 다수의 심리적 특징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분석 방법은 주식투자 경험으로 인해 그러한 심리적 특징을 갖게 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심리적 특성에 따라 주식투자 경험 수준이 달라지는지 각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위험감수성향과 자기통제력 간, 자기중심성과 자기통제력 간에서처럼 서로 유사한 특성을 공유한 변인들을 사용하는 경우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서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추후에는 임상집단과 비임상집단의 비교를 통해 주식중독과 심리적 특성 간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통해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또한 제공될 수 있으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 강상준, 양혜정, 문진영 (2021). 청년층의 자본소득 투자와 도박중독 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2(6), 361-372. <https://doi.org/10.22143/HS.S21.12.6.26>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강준혁, 맹성준 (2018). 문제성 주식투자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생명연구*, 49, 191-239. <https://doi.org/10.17924/solc.2018.49.191>
- 강훈 (2016).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와 애착이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을 매개변인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RISS. <https://www.riiss.kr/link?id=T14450848>
-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학지사*.
- 금융감독원 (2022). 자본시장 위험분석보고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 김경진, 신현지, 김교현, 임숙희 (2019). 도박 부채, 금전동기 및 문제성 도박의 관계: 기질(BAS/BIS)의 조절된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0(4), 67-80. <https://doi.org/10.16881/jss.2019.10.30.4.67>
- 김교현 (2006). 중독과 자기조절: 인지신경과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1-37.

- 김덕진 (2017). 대학생의 도박행동: 자기통제력의 매개 효과 및 다집단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지*, 18(6), 197-208. <https://doi.org/10.5762/KAIS.2017.18.6.197>
- 김병년, 고은정, 최홍일 (2013).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중독 위험군 분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3), 67-98.
- 김석준, 강세현 (1996). 합법적 도박의 사회적 영향. *제도연구*, 13, 53-95.
- 김세종, 홍혜영 (2024).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관계 중독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5(1), 23-40. <https://doi.org/10.15703/kjc.25.1.202402.23>
- 김수현 (2019). 개인투자자는 왜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하는가?: 서울 매매방 개인 전업투자자의 꿈과 금융시장 간파.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RISS. <https://www.riss.kr/link?id=T15400650>
- 김순석 (2009). 주식제도의 개선 -종류주식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28(3), 131-173.
- 김신희, 이창현 (2023). 내면화된 수치심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효과: 자기통제력으로 조절된 대인관계유능성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5, 73-87. <https://doi.org/10.22143/hss21.15.6>
- 김완재, 정화영 (2007). 창업자 특성과 소기업 사업성과 간 관계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2(3), 33-60.
- 김왕배 (2011). 대박열풍과 ‘카지노’사회. *사회과학논집*, 42(2), 51-77.
- 김은정 (2002). 인터넷 중독 소아-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취약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3(1), 104-116.
- 김정주 (2023). 내현적 자기애가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정신화와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RISS. <https://www.riss.kr/link?id=T16702951>
- 김현석, 서정원 (2018). 무상증자, 액면분할, 주식배당: 주가와 거래량 효과. *한국증권학회지*, 47(1), 27-67. <https://doi.org/10.26845/kjfs.2018.02.47.1.27>
- 김현주 (2012). 자기통제력 수준에 따른 자아-고갈 회복 요인.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RISS. <https://www.riss.kr/link?id=T12638968>
- 김현진 (2019). 대학생의 금전동기와 흥분동기가 문제도박에 미치는 영향: 자기중심성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RISS. <https://www.riss.kr/link?id=T15111131>
- 김혜경 (2024). 대학생의 자기통제력 및 정서표현억제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8), 653-663. <https://doi.org/10.22251/jlcci.2024.24.8.653>
- 남기연, 권영실 (2023). 불법 마약류 남용자의 위험감수성향과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가 자살 위험성이 미치는 영향: 습득된 자살 잠재력을 중심으로. *스트레스연구*, 31(4), 168-174. <https://doi.org/10.17547/kjsr.2023.31.4.168>
- 남준, 장현아 (2023). 대학생의 자기통제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 매개효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4(3), 1117-1128. <https://doi.org/10.22143/hss21.14.3.78>
- 류경희 (2014). 중학생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와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 공격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RISS. <https://www.riss.kr/link?id=T13386982>
- 박찬범 (2022년 10월 11일). 나는 주식 투자자인가, 주식 중독자인가. *SBS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27347
- 박현 (2021년 4월 6일). 지난해 ‘빚투’ 신용융자 상승폭, 미국의 3배·일본의 5배.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89666.html>
- 변서영, 김교현 (2018). 접근 및 회피동기 민감성과 조절 프레이밍이 도박성 게임의 추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1), 231-245. <https://doi.org/10.17315/kjhp.2018.23.1.012>
- 백용호, 차명준 (1994). 도박심리를 이용한 주식투자 행태분석. *한국증권학회지*, 16(1), 395-435.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27759>
- 서용석, 송섭규 (2023). 왜 불법도박에 참여하는가? -위

- 험감수 성향과 억제요인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35(3), 3-23. <https://doi.org/10.21581/jts.2023.8.35.3.3>
- 손명환 (2022). 감각추구성향, 고통감내력 부족, 삶의 기대가 주식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일반대학원]. RISS. <https://www.riss.kr/link?id=T16593952>
- 손영은 (2018). 고등학생의 자기중심성, 총동성, 고립감 및 부모와의 갈등과 스마트미디어 중독 간의 관련성. [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RISS. <https://www.riss.kr/link?id=T14794064>
- 송복규, 윤예원 (2022년 6월 28일). “왜 나만 돈 잊지?” 주식·코인시장 ‘페닉’에 정신과 찾는 ‘2030’ 급증.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6/28/BF6VHZBW5FCH7OOJFUT65E5SBY/
- 송원영 (1998).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RISS. <https://www.riss.kr/link?id=T7124663>
- 송준희 (2019). 기질 및 위험감수성향, 가족응집력, 또래 관계가 청소년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RISS. <https://www.riss.kr/link?id=T15374980>
- 심옥녀 (2008).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RISS. <https://www.riss.kr/link?id=T11205196>
- 안영규 (2021). 주식중독의 원인 및 대응방안. 한국중독 범죄학회보, 11(3), 69-83. <https://doi.org/10.26606/kaac.2021.11.3.4>
- 원소희, 서경현 (2016). 청소년의 자기중심성 및 인정욕구와 스마트미디어 중독 간의 관계: 소외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9), 255-274. <https://doi.org/10.21509/kjys.2016.09.23.9.255>
- 유인노, 장정임, 김성봉 (2014). 대학생의 도박동기와 자기통제력이 도박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6(3), 237-256.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266518>
- 이경윤 (2022). 주식중독 진단측정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와 주식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경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RISS. <https://www.riss.kr/link?id=T16362677>
- 이경희 (2010). 기질, 도박관련 경험 및 비합리적 인지가 문제도박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RISS. <https://www.riss.kr/link?id=T12194329>
- 이동준, 맹성준, 강준혁 (2021). 청년 주식투자자들의 ‘빚투’ 경험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 접근, 미래사회복지연구, 12(1), 127-160. <https://doi.org/10.22836/kaswpr.2021.12.1.127>
- 이동준, 한창근 (2021). 청년 주식투자자들의 신용대출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9), 771-789. <https://doi.org/10.5392/JKCA.2021.21.09.771>
- 이민규, 김교현, 김정남 (2003). 도박중독 실태와 도박중독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399-414. <https://accesson.kr/healthpsy/v.8/2/399/18534>
- 이성식 (2024). 게임중독과 사이버폭력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역할.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4(1), 105-120. <https://doi.org/10.26606/kaac.2024.14.1.5>
- 이수정, 김교현 (2017). 위험감수성향과 도박행동 및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관계에서 승리접근경험의 조절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2), 339-354. <https://accesson.kr/healthpsy/v.22/2/339/19235>
- 이승제, 이대영, 정의준 (2018). 확률형 아이템 게임 이용이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변화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우울감, 자기통제, 물질가치 그리고 게임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게임학회지, 18(1), 51-62. <https://doi.org/10.7583/jkgs.2018.18.1.51>
- 이슬비 (2021년 3월 16일). 도박만큼 무서운 ‘주식 중독’… 뇌가 고장난다. 헬스조선.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5/2021031502119.html
- 이연호, 박영화, 배영목, 한광석 (2018). 불법도박 참여 실태와 결정요인. 사회과학연구, 57(1), 101-131. <https://doi.org/10.22418/jss.2018.6.57.1.101>

- 이은지 (2015).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 성과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검증.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RISS. <https://www.riss.kr/link?id=T13850380>
- 이주영 (2017).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기은폐 및 우울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RISS. <https://www.riss.kr/link?id=T14390748>
- 이준복, 윤상연, 허태균 (2014). 누가, 왜 불법도박을 할까?: 불법도박 경험 수준에 따른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2), 155-176. <https://accesson.kr/kpacsci/v.20/2/155/13751>
- 이준영, 정지영 (2011). 남성과 여성의 투자위험 감수성향 차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9(10), 1-13. <https://doi.org/10.6115/khea.2011.49.10.001>
- 이지현 (2018). 내현적 자기애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부정 자기복잡성과 탈중심화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RISS. <https://www.riss.kr/link?id=T14854977>
- 이홍표 (2002). 비합리적 도박신념, 도박동기 및 위험감수 성향과 병적 도박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RISS. <https://www.riss.kr/link?id=T8655942>
- 임숙영, 임영진 (2017). 내현적 자기애와 대학생의 SNS 중독의 관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8(2), 131-145.
- 장수미 (2016). 음주문제는 도박문제를 예측하는가?: 물질중독과 행위중독의 관계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8(2), 5-25. <https://doi.org/10.20970/kasw.2016.68.2.001>
- 장효강 (2015).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디지털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RISS. <https://www.riss.kr/link?id=T13868917>
- 전진아 (2015). 도박중독실태와 예방·치유 정책 현황 및 과제. *보건복지포럼*, 229, 25-33.
- 정남운, 유은영 (2015). 내면화된 수치심의 임상적 타당성: 자기통제력, 공격성 및 중독가능성과의 상관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481-496. <https://accesson.kr/kpacsci/v.21/3/481/13791>
- 정대성, 류호영, 최기홍 (2024). 국내 개별주식선물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금융공학연구*, 23(2), 157-179. <https://doi.org/10.35527/kfedoi.2024.23.2.008>
- 정순희, 신민경 (2011). 재무위험수용성향과 위험자산보유율 관련 변수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44), 1-20.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14194>
- 진세희 (2021). 자기과신과 위험수용성향이 2030 세대의 주식투자행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RISS. <https://www.riss.kr/link?id=T16067209>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2022). 도박문제 인구학적 통계 2022년 보고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한국마사회 (2009). ‘전국민대상 대규모 도박이용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위한 사전조사 기획 연구 용역. 한국마사회.
- 한미영, 김재휘, 안서원 (2009). 손실 상황의 주식투자 결정에서 사전가정사고와 예상되는 후회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141-156. <https://doi.org/10.21193/kjspp.2009.23.2.008>
- 한성열, 이홍표, 허태균, 장훈 (2009). 한국사회의 도박 이용율과 이용실태 및 병적 도박 유병률- 도박 종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2), 255-276.
- 한영옥 (2012). TCI 반응 양상을 통해 본 남성 병적 도박자의 기질 및 성격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4), 873-889.
- 황금주 (2021년 3월 19일). 주식·사업 실패…함께 숨진 채 발견된 어머니와 아들.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47517&code=61121211&cp=du>
- 황세홍 (2022). 주식투자 동기가 중독 행동에 미치는 영향: 주도적 대처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RISS. <https://www.riss.kr/link?>

- id=T16532922
- Ainia, N. S. N., & Lutfi, L. (2019). The influence of risk perception, risk tolerance, overconfidence, and loss aversion towards investment decision making. *Journal of Economics, Business, & Accountancy, Ventura*, 21(3), 401–413. <https://doi.org/10.14414/jebav.v21i3.1663>
- Arthur, J. N., Williams, R. J., & Delfabbro, P. H. (2016). The conceptual and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gambling, investing, and speculation.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5(4), 580–591. <https://doi.org/10.1556/2006.5.2016.084>
- Brown, R. P., & Zeigler-Hill, V. (2004). Narcissism and the non-equivalence of self-esteem measures: A matter of dominan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8(6), 585–592. <https://doi.org/10.1016/j.jrp.2003.11.002>
- Ferguson, M. A., Valenti, J. M., & Melwani, G. (1991). Communicating with Risk Takers: A Public Relations Perspective. *Public Relations Research Annual*, 3, 195–224. https://doi.org/10.1207/s1532754xjprr0301-4_10
- Franken, I. H., Muris, P., & Georgieva, I. (2006). Gray's model of personality and addiction. *Addictive Behaviors*, 31(3), 399–403. <https://doi.org/10.1016/j.addbeh.2005.05.022>
- Gilovich, T., & Douglas, C. (1986). Biased evaluations of randomly determined gambling outcom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3), 228–241. [https://doi.org/10.1016/0022-1031\(86\)90026-0](https://doi.org/10.1016/0022-1031(86)90026-0)
-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vetter, F., & Wallnau, L. (2014). *Essentials of statistic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8th ed.). Wadsworth.
- Guglielmo, R., Ioime, L., & Janiri, L. (2016). Is Pathological Trading an Overlooked Form of Addiction?. *Addict Health*, 8(3), 207–209. https://ahj.kmu.ac.ir/article_84689.html
- Hamstra, M. R., Bolderdijk, J. W., & Veldstra, J. L. (2011). Everyday risk taking as a function of regulatory focu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5(1), 134–137. <https://doi.org/10.1016/j.jrp.2010.11.017>
- Hardika, I., Aryani, L., Lesmana, C., & Putra, I. (2023). Development of trading addiction questionnaire for traders in Indonesia.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 Medical Sciences*, 6(2), 150–157. <https://doi.org/10.21744/ijhms.v6n3.2178>
- Jauk, E., & Dieterich, R. (2019). Addiction and the Dark Triad of Personality. *Frontiers in Psychiatry*, 10, 662–668. <https://doi.org/10.3389/fpsyg.2019.00662>
- Joseph, W. C. (2007). 도박중독 심리치료: 개인 및 가족치료를 위한 자기조절 매뉴얼 [Counseling Problem Gamblers]. (김경훈, 김태우, 김한우, 안상일, 이영찬, 최성일, 이홍표 역).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01에 출판).
- Kendall, P. C., & Wilcox, L. E. (1979). Self-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6), 1020–1029. <https://doi.org/10.1037/0022-006X.47.6.1020>
- Knowles, E. S. (1976). The relationship of risk motivation to the subject assessment risk and the preference for risk. In W. R. Eadington (Ed.) *Gambling and society: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the subject of gambling* (pp. 295–322). Charles C Thomas.
- Knowles, E. S., Cutter, H. S. G., Walsh, D. H., & Casey, N. A. (1973). Risk-taking as a personality trait.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2), 123–129. <https://doi.org/10.2224/sbp.1973.1.2.123>
- Knutson, B., & Bossaerts, P. (2007). Neural

- antecedents of financial decisions. *Journal of Neuroscience*, 27(31), 8174-8177. <https://doi.org/10.1523/JNEUROSCI.1564-07.2007>
- Logue, A. W. (1995). *Self-Control*. Prentice Hall.
- Macenczak, L. A., Campbell, S., Henley, A. B., & Campbell, W. K. (2016). Direct and interactive effects of narcissism and power on overconfid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1, 113-122. <https://doi.org/10.1016/j.paid.2015.11.053>
- Mehdizadeh, S. (2010). Self-presentation 2.0: Narcissism and self-esteem on facebook. *Cyberpsychology, Behavior, & Social Networking*, 13(4), 357-364. <https://doi.org/10.1089/cyber.2009.0257>
- Mishra, S., Lalumiere, M. L., Morgan, M., & Williams, R. J. (2011).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ambling and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Gambling Studies*, 27(3), 409-426. <https://doi.org/10.1007/s10899-010-9217-x>
- O'Connor, J., & Dickerson, M. (2003).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chasing in off-course betting and gaming machine play.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9(4), 359-386. <https://doi.org/10.1023/a:1026375809186>
- Ross, S. M. (2004). *Introduction to probability and statistic for engineers and scientists*. Academic Press.
- Ryan, T., & Xenos, S. (2011). Who uses Facebook? An investigation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g Five, shyness, narcissism, loneliness, and Facebook usag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7(5), 1658-1664. <https://doi.org/10.1016/j.chb.2011.02.004>
- Thijs, B., Bram, L., & Sander, S. (2014). Income Inequality and Gambling: A Panel Study in the United States (1980 - 1997). *Sociological Spectrum*, 34(1), 61-75. <https://doi.org/10.1080/02732173.2014.857196>
- Xuan, Z., & Shaffer, H. (2009). How Do Gamblers End Gambling: Longitudinal Analysis of Internet Gambling Behaviors Prior to Account Closure Due to Gambling Related Problems. *Journal of Gambling Studies*, 25(2), 239-252. <https://doi.org/10.1007/s10899-009-9118-z>
- Youn, H. C., Choi, J. S., Kim, D. J., & Choi, S. W. (201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tock addiction inventory (SAI). *Annals of General Psychiatry*, 15(1), 1-7. <https://doi.org/10.1186/s12991-016-0105-3>

원고접수일: 2024년 9월 19일

논문심사일: 2024년 10월 7일

게재결정일: 2024년 11월 25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5, Vol. 30, No. 1, 91 - 110

The effects of risk-taking and egocentricity on stock addic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ntrol

Woogwan Jo Yumin Jeon Sokho Lee

Department of Addiction, Catholic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risk-taking tendency, egocentricity, and self-control relate to stock addiction and how significantly these factors affect it. To achieve thi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300 adults nationwide, all over the age of 19 and with stock investment experience.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understand the main effects of variables and the interaction effect (modulating effect) of self-control. The analysis revealed that risk-taking tendency and self-centeredness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tock addiction, while self-control exhibit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stock addiction. Additionally, the multilinear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main effects of risk-taking tendency and self-centeredness were significant, and self-control was found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enteredness and stock addiction. Based on the study's findings, the discussion focused on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interventions in stock addiction.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also addressed,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provided.

Keywords: *risk-taking tendency, egocentricity, self-control, stock addiction, multilinear regression analysis, modulating effect*